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2023 동계 영어권 단기 어학연수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4.01.02. ~ 2024.01.31.(수)				
1. 현지연수 파견 전 절차 10.13. ~ 10.22. <2023 동계 단기어학연수> 참여자 모집 10.24. 1차 합격자 발표 및 추가모집 10.29. 2차 합격자 발표 10.30. 전체 합격자 교육(OT) 11.03. 참여 서약서 제출 12.10. 장학금 지출용 서류 통장사본, 보험 가입확인서, 왕복항공권 제출 12.15. 장학금 수령 *말레이시아 헬프대학교 - 150만원 지원 12.29. 헬프대학교 자체 교육(OT) 2024.01.02. 출국 본인의 경우 ‘추가모집(2차)’에 선발되었으며, OT는 시간 조정을 하여 31일에 따로 교육받았습니다. 이번 어학연수에 참여하였던 타 대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 사전에 대학별 특방이 개설되어 참여자와 출국 전 미리 만나 친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건 본교가 유일했습니다. 이후 항공권 예매를 같이 하였고, 참여 기간 동안 담당자 선생님께 현지 상황을 보고할 대표 학생을 선정하였습니다. 2.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2.1) 교육과정 이번 기수부터 ESC28기(Level A,B,C), BEP1기 총 4개의 분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자는 생활영어 느낌이라면, 후자는 비즈니스 상황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오전(분반 수업)과 오후(선택과목 및 필수 단체 활동)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레벨테스트 후 배정받은 ESC28_A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전 ▶ 수업 목록 - 경영학 위주					

- 문법(형용사 배치 순서)
- 교재를 활용한 상황별 생활영어 습득
- 헬프대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임
 - 1) 스피드 퀴즈
 - 2) 물건 흥정하여 포인트 쌓기
 - 3) 구매한 물건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 주차별 대표과제

- 말레이시아 대표 음식을 선정하여 ‘브이로그, 말레이시아안 인터뷰, E-포트폴리오’ 제작

주차별 목표	목표 설명	주차	마감기한
주제 선정	말레이시아의 대표 전통음식 선정 - 음식 선정이유 - 문화적 특징	1주차	2024/01/11
조사	세부조사 - 만드는 방식 - 역사적인 배경 - 직접 마켓에 방문하여 브이로그 촬영	2주차	2024/01/17
설문조사 및 인터뷰	- 최소 10명의 말레이시아인과의 인터뷰 (녹음파일) - 질문 5개 작성하기	3주차	2024/01/23
개인 후기 작성	참여 과정에 있어서 느낀 점 300단어 이상 작성	3-4주차	2024/01/24
최종 발표	자료조사 요약, 브이로그 촬영 영상, 조사결과 도표	4주차	2024/01/25
E-포트폴리오	제시된 규격에 맞춰 온라인 포트폴리오 제출하기	4주차	2024/01/25

▶ 광고 영상 제작

- 초반에 이루어졌던 과제로 말레이시아의 물품을 하나 선택한 뒤 광고 영상을 제작
- 광고에 필요한 필수 요소(성분, 판매처, 가격, 구매심리 자극 등) 반영하기

▶ 토론

- 토론 주제: Conventional shopping is better than online shopping
- 각자의 팀 주장을 펼친 후 상대팀 의견 반론하기
- 토론 절차, 예의 등 배우기

▶ 그 외 과제

- 1) 과일 하나를 선정하여 과일 판매 PT
- 2) 말라카 투어 후 말라카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사진 첨부하여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 3) 헬프대학교 주변에는 어떤 마켓이 있는지 5개 이상 찾은 후 소개 영상 만들기

		
헬프대학생과 함께 게임하기	PT	브이로그 촬영 Building Introduction Group2 (5 members)

다음은 오후 수업으로 개인이 신청한 청강/특강 읍서널 수업(최소 3개 수강)과 필수 참석이 있습니다.

●오후

1) 선택수업

- ▶ Understanding of Malaysia' s Muti-culture
 -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자리잡은 한국 브랜드 소개)
- ▶ Organizational Behaviour
 - 헬프대학 학생의 수업을 청강. 조직생활에서 필요한 마인드와 자세
- ▶ Malaysia now & World Now
 - 비즈니스에서 갖추어야 할 매너와 영어 커뮤니케이션 개선

2) 필수 참석

- ▶ Buddy Matching: 2(말레이시아):4(한국) 비율의 버디 그룹 매칭
- ▶ Malay Class: 말레이시아어로 자기소개와 숫자, 생활언어 배우기
- ▶ Murder Mystery: 헬프대학 학생과 소통하여 범인을 찾는 추리게임
- ▶ Emotional Intelligence Talk: 자아 찾기
- ▶ Buddy Party: 어학연수에 참가 중인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헬프대학 버디 친구들과의 파티
- ▶ Final project: 팀별로 말레이시아에 들어올 한국제품을 선정하여 PT

		
Organizational Behaviour	Murder Mystery	Buddy Party

2.2) 체험활동

		
헬프대학교 투어(푸트라자야)	푸켓	자유시간(겐팅 하일랜드)

- 헬프대학교 공식 투어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는 건 총 두 번이고, 한 번은 선택으로 다녀왔습니다. 기념품점(센트럴 마켓), 사원(푸트라자야)와 현지식당 등을 방문한 ‘시티투어’가 있었고, ‘말라카 투어’가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 외 원하는 학생만 모집하여 떠난 ‘바투동굴&반딧불이 투어’도 있습니다.

- 푸켓

룸메이트와 상의하여 3주차 주말에는 푸켓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선셋이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직행할 수 있는 코타키나발루보다도 아예 더 멀리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말에 한 번쯤은 여행 속의 여행을 꼭 다니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자유시간

평일에는 이른 아침에 수업을 하여, 덜 피곤하면 오후에 물을 가거나 맛있는 한 끼를 먹는 것 외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노는데 KL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겐팅 하일랜드를 갔다 오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3. 참가 성과

1) 잠든 영어를 깨우다

한 달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했기에 영어 실력 상승을 목표로 어학연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평소 영어로 말해본 적도 없어 그저 막연하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로컬버디를 만나며 긴장을 풀고, 밥을 먹고 물건을 구입할 때 필요한 반복된 생활영어를 하니, 생각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며 지내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이기에 다양한 억양의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박물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를 하던 중 외국인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다른 알바생들은 친숙한 영어 발음이 아니라, 방문객이 말씀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였는데 저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귀가 트여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있다면 덜컥 겁부터 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해보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2) 아시아문화 배우기

예술을 전공으로 삼고 있기에 전시장을 다니며 미술작품을 볼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립 미술관(National Art Gallery)>을 방문하였는데, 말레이시아인의 생활 모습이 그려진 작품을 보면서 처음으로 외국인의 시선으로 자국민의 문화가 담긴 작품을 본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전공을 배우면서 한국 혹은 넓게 서양미술만 알고 있었는데, ‘아시아 미술’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작품이 가진 의사소통력이란 무엇인지 깨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레이시아는 다문화 국가라는 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중국, 인도의 문화를 알 수 있었고,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나라인 만큼 할랄 음식과 이슬람교를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후에 다른 나라에 방문하였을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폭넓게 친구 사귀기

어학연수에서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한 명 이상의 로컬버디와 한국친구를 깊이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이야기하려 노력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SNS를 통하여 얘기하니 로컬버디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호칭 문화인 한국과는 달리 나이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마음이 편한 것도 한몫하였습니다. 제 나이와 학년을 고려하였을 때 의외로 동갑내기 친구들이 많아서 놀랐고, 어린 동생들과도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지역도, 문화도, 배우는 것도 모두 다르지만, 마음은 통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스스로가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본인 소요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출국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과연 얼마를 환전하고, 가서 환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였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해당란에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전 환전 - 하나은행

225,000원으로 RM50을 15장 받았습니다. 환율은 대략 300원 이상입니다. 초반에 생활할 때 생각보다 현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소진하고자 했는데, 후반에 오히려 ATM으로 인출을 여러 번 했습니다.

2) 도착 후 환전 방법

트레블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어서 원화는 5만원권 6장정도 가지고 갔었는데, 한 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트레블페이를 활용해 ATM으로 수수료 없이 인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큰 쇼핑물에는 환전소가 잘 되어있지만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3) 사용경비

현지에 있으면서 계산하기 쉽도록 RM1 = 300원으로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표도 그렇게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구분	항목	금액	비고
한국 출국 전 준비	장학금	+1,500,000원	
	대학 납부 금액	2,557,000원	
	보험료(학교 자체 가입)	10,000원	
	왕복 항공료	670,000원	바탕에어
	사전 환전	225,000원	하나은행
	1차 합계 (*장학금 포함)	1,962,000원	
말레이시아 생활비	식비	448,400원	
	음료	65,700원	
	식수	10,000원	
	통신비	15,000원	공항 ‘핫링크’ 유심
	교통비	63,000원	
	세탁비	15,000원	5회 이용(1회 RM10)
	쇼핑	238,200원	
	기념품	51,000원	
	여행1	149,400원	반딧불 투어, 문화비 등
	여행2(푸켓)	75,000원	환전비용
	여행2(푸켓)	249,650원	숙소+비행기
	2차 합계	1,380,350원	
	총 합계	3,342,350원	

사전에 담당자 선생님께서 말레이시아는 대략 300만원 정도 사용할 거라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다소 과한 비용의 식사를 줄일 걸 싶었고, 교통비 부분에서 GRAB(택시)가 아닌 MRT/LRT(지하철)을 탔으면 절약됐을 것 같습니다. 또, 항공권 예매 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방법을 배우다.

동계 단기 어학연수의 참여 목표는 ‘첫 해외여행에서의 나의 모습 알아보기’가 목표였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고, 특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여행을 가본 적도 없기에 어학연수는 제게 있어 큰 결심이자 모험이었습니다. 해외라는 점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막막해서 현지 도착 후에 이것저것 찾아보았었는데 현지 버디에게 어디 갈지 추천도 받고, 룸메이

트와 상의하여 주말엔 푸켓으로 여행도 갔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날의 일정을 정하면서 제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평소 고민이 많고, 장기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무하게 보낼까 걱정도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의 특수성 때문에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자며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과 내일만 생각해도 하루를 잘 보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여 막막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나니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생활습관을 점검하다

숙소는 1인실과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본교에서 온 동생과 함께 2인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숙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에 걱정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다년간의 기숙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늦게 쟁기는 것과 방을 어지럽혔을 때 바로 치우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제 영역 안의 일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생기고 나서는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하나씩 고쳐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평소 늦게 잠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대방이 있다 보니 일찍 잠들게 되고 아침에도 여유롭게 기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인실을 사용하길 잘한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니 내게도 오는 이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물품은 무엇인지부터, 방 안에서의 습관을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 졸업요건 수행과 영어

본교에서 졸업까지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게 중요한 학기인 만큼 조선대학교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본 전공에서는 졸업요건으로 ‘공연’을 제작해야 하며, 복수전공에서는 필수전공인 <큐레이터인턴십3>을 수강하며 전시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PT 기량을 단련할 예정입니다.

어학연수 도중 의사소통에 한계를 느껴 전화 영어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토사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언어교육원에 관심이 생겨 오기 전에 겨울학기 강좌를 신청했으나, 결국 원하는 시간대에 인원이 없어서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영어 쪽으로 다시 알아보고 수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내공모전과 교내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학점 4점대를 유지하여 대학 생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졸업하고자 합니다.

2) 진로계획

: 대학원과 취업

졸업까지 한 학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학업은 잊고 멀어져 보자 하였지만, 국립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룸메이트에

게 작품을 설명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전공을 살려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큐레이터가 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 혹은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이라는 두 가지 노선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연구 분야를 확실히 선정하고, 차선책으로 졸업 후에 당장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탐색할 예정입니다.

7.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헬프대학교는 네이버 카페와 밴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에 전체 일정 공지, 출국 전 서류작성, 준비물 리스트, 항공편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면서도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한 것들은 바로 검색하여 찾아보았습니다.

▶ 항공편 구입

말레이시아 출국 전, 네이버 밴드를 확인하니 학생들은 보통 ‘에어아시아, 바틱에어’ 두 항공사 예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가격 비교 후 ‘바틱에어’를 선택하였습니다. 바틱에어는 기내수화물은 20kg까지 무료, 에어아시아 대비 앞뒤 좌석 간격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내식은 별도입니다.

▶ 말레이시아 어학연수생 사전 체크리스트 추천 필수품

1) 비용

▶ ‘트레블 월렛’ 발급받기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VISA 카드
- 연결된 계좌에서 링깃으로 환전 후 사용. 체크카드와 유사.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
- 대형몰, 식당, 그랩 등에서 현금보다 카드를 자주 사용했던 경험
- 로컬식당, 노점 등에서는 사용 불가
- 공식 사이트 링크: <https://www.travel-wallet.com/>

2) 옷

▶ 외투

- 말레이시아는 실외가 덥기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 헬프대 수업 중에는 필수
- 바람막이, 얇은 셔츠 등 휴대가 용이한 소재 추천
- ▶ 옷 넉넉히 챙기기
- KL의 물가가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음.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낌. 옷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다 구매하겠다는 생각은 비추천

3) 생필품

▶ 샤워필터

- 수질이 좋지 않음. 1~2주차는 샤워 필터를 주에 한 번씩 갈았지만, 3~4주차에는 급격히 수질이 좋지 않아 3일에 한 번 샤워필터를 교체. 3일에 한 번 교체할 생각으로 넉넉히 챙길 것.

▶ 바구니

- 화장대 위에 바구니 하나쯤은 있으면 물건을 관리하기에 매우 편함. 룸메이트의 것까지 가져갔는데, 둘 다 정말 잘 사용함

▶ 비상약과 마스크

- **절대 본인이 건강할 거라 자만하지 말 것!** 마스크와 상비약을 넉넉히 챙기길 추천. 숙소 에어컨과 맞지 않아 목감기에 걸림. 약 복용은 2주간 이루어졌고, 마스크는 귀국하기 전까지 숙소에서 매일 착용함



2인실 숙소



샤워기 필터(3-4주차 때 찍은 사진, 3일마다 교체함)



화장실

4) 유심

▶ 공항에서 '핫링크' 구매

- RM50(약 15,000원)을 주고 구입하였음. 한 달 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함. 한 달 정도 살면 ESIM보다는 유심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함

▶ 교통수단

1)MRT/LRT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지하철이 잘 되어있어서 구글맵을 믿기보다도 노선을 잘 확인하고 탄다면 이동이 수월함. 지하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상에 있어 바깥을 구경하기에도 좋음. 교통카드를 만드는 걸 추천함

2)GRAB

택시앱. 매우 저렴함. 그러나 지출경비를 보면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하철을 추천함. 예약취소 시 30분-1시간 내로 금액이 다시 반환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됨

▶ 여행계획(*과제를 조심하세요)

헬프대학교 과제가 많다는 건 알고 갔지만, 정말 많았습니다. 분반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속한 반은 타 반보다 과제가 확실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힘들어 반을 조정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으니 노트북은 필수이고, 여행계획이 있다면 1-3주차 안으로 끝내길 바랍니다. 4주차에는 파이널 프로젝트와 분반 과제를 마무리하는 주간이라 매우 바쁩니다.

▶ 총평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인 만큼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국적인 것을 발견하여 반가울 때가 많았고 로컬 버디 또한 한국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햇빛이 강한 나라라 덥고 눈이 부실 순 있지만, 그만큼 색감이 예뻐서 풍경이 참 아름다운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말레이시아의 풍경을 눈에 잘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8. 기타사항

헬프대학교 커뮤니티(카페, 밴드)에는 기존 참여자들의 후기나 코디진이 정보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나지 않고, 저장해 두어도 항상 어디를 갈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로 간단하게 20분 내외인 숙소 근처 맛집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숙소 근처 '바쿠테' 맛집 Enjoy your meal! MINJI BAK KUT TEH	 출국 D-1 후회없는 재방문 Q-BISTIRO	 비오는 날은 숙소 1층에서 해결 Mei pow Vietnam Food
·위치: https://maps.app.goo.gl/UkVooArEiJsvxVyR7 ·추천: Ribs RM22 Braised Samll Bone RM25	·위치: https://maps.app.goo.gl/MhQ34PCDrmQXfUpF6 ·추천: 버터 치즈 난 ·비고: 직장인들이 방문하는 곳이라 저렴함. 모바일 메뉴판에 그림이 있어서 메뉴 선택이 쉬움	·위치: https://maps.app.goo.gl/THjHNxsLg8dqe9dNA ·추천: Lean meal RM16 Sliced beef kuey teow RM16 ·비고: 고수(coriander)를 싫어한다면 따로 말씀드리기

9. 활동사진(2장 이상 사진 설명 필요)

		
바투동굴투어 (2주차)	졸업식 (4주차)	트윈타워&수리아KLCC (4주차)
		
현지식당 사테 (1주차)	수리아KLCC 분수 (4주차)	파이널 프로젝트PT (4주차)
		
프르데가 광장 (3주차)	버디 미팅 (1주차)	말라카 투어 (1주차)